DEEP DIVE 라이트뷰 딥다이브 · 특별판

엔비디아의 다음 얼굴

위임장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단어, 승계
젠슨 황 해임 논의, 후보 여섯 명을 같은 잣대로
빈자리를 한 사람으로 채울까, 구조로 채울까

글 **라이트뷰 운영자** **2026년 11월 12일** 11월 12일 오전(한국 시간)까지 공개된 정보 기준

핵심 요약

1. **엔비디아 위임장에는 '승계'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위임장 문구로 보면 이사회에 후계 후보군을 보여 주는 사람도 CEO 본인이었습니다.
2. **결정은 이사회 몫입니다.** 황의 지분은 3.58%이고 차등의결권이 없어, 이사 11명 가운데 독립이사 10명이 거취를 정합니다.
3. **라이트뷰는 황이 혼자 맡아 온 역할을 다섯 가지로 봅니다.** 기술 판단, 고객, 투자자, 워싱턴을 한 사람이 맡았고, 직속 보고는 약 60명에 COO는 없습니다.
4. **후보 여섯 명 가운데 다섯 칸을 다 채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부의 이안 벅과 콜레트 크레스, 외부의 르네 하스와 팻 겔싱어, 시장이 꼽꾸는 리사 수와 팀 쿡 모두 비는 칸이 있습니다.
5. **라이트뷰가 보는 답은 조합입니다.** 단기에는 크레스가 다리를 놓고, 장기 엔진은 벅이나 하스입니다. 60명이 한 사람에게 보고하는 구조가 그대로면 누가 와도 또 한 사람에게 기대는 회사가 됩니다.

엔비디아가 5월 1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낸 2026년 위임장은 25만 자가 넘는 문서입니다. 이사 선임부터 임원 보수, 주주 제안까지 회사 지배구조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승계(succession)'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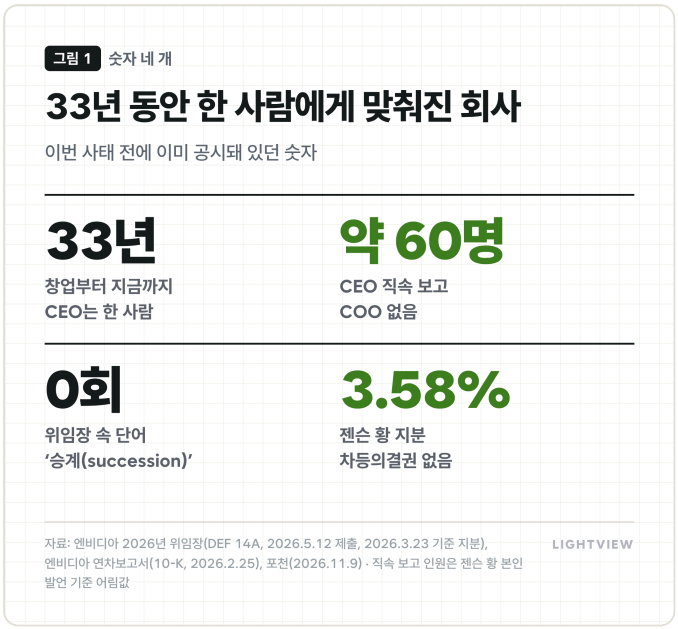
가장 가까운 대목은 '고위 경영진 육성'이라는 네 문장짜리 항목입니다. 많은 고위 관리자가 CEO와 직접 일하며 전략을 실행하고, 그 결과 이사회는 훌륭한 승진 후보군을 얻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사회 앞에서 주요 사안을 설명할 임원을 고르는 사람도, 경영진 육성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사람도 CEO입니다. 후계 후보를 이사회에 보여 주는 일을 33년째 CEO인 젠슨 황 본인이 맡아 온 셈입니다.

> **"이사회에 훌륭한 승진 후보군을 보여 준다"**
>
> 엔비디아 2026년 위임장 '고위 경영진 육성' 항목 · 영어 원문을 옮김

LIGHTVIEW DEEP DIVE · 산업·기술을 이끄는 인물과 회사를 깊이 들여다보는 연재입니다. 공시와 공개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이 칼럼은 AI 도구를 활용해 만들었습니다.

위험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2월에 낸 연차보고서 위험 요인에는 오래 함께한 경영진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효과적인 승계 계획을 갖추지 못하면 장기 성공이 흔들릴 수 있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위험은 적어 두었지만 계획은 어디에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그 문장이 현실이 됐습니다. 황이 외도를 인정한 지 사흘 만에 이사회가 해임을 준비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장이 묻는 것은 하나입니다. 누가 와야 지금의 엔비디아를 가장 잘 살릴 수 있을까요. 라이트뷰는 거론되는 후보 여섯 명을 같은 잣대 다섯 개로 따져 봤습니다.



1 사흘 만의 해임 논의

시작은 10월 말 뉴욕타임스 보도였습니다.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가 의심되는 여성과 황의 관계를 다룬 기사였고, 라이트뷰는 11월 9일 칼럼에서 그 여성에 대해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을 따져 봤습니다.

11월 8일 황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아내에게 충실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같은 날 이사회는 독립이사 위원회가 외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독립 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안보나 회사 기밀이 훼손됐다고 볼 근거는 없다면서도 조사는 모든 정보를 살펴보겠다고 했고, 황과 경영진을 신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거래일 주가는 4.3% 내렸습니다.

사흘 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10~11일 보도된 뉴욕타임스 기사는 황이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는 임원과도 관계를 맺어 왔다고 전했습니다. 엔비디아와 당사자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사회가 황의 해임을 준비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이사회가 수요일 회의에서 거취를 논의한다고 전했습니다. 정규장에서 2.9% 올랐던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약 8.6% 떨어졌습니다.



압박은 이사회 밖에서도 커졌습니다. 블룸버그는 엔비디아가 외부 헤드헌팅 회사와 함께 후임 후보를 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하원 의원들은 첫 보도와 관련해 황에게 비공개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고, 응하지 않으면 소환장을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사 베어드는 CEO 거취가 불확실하다며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내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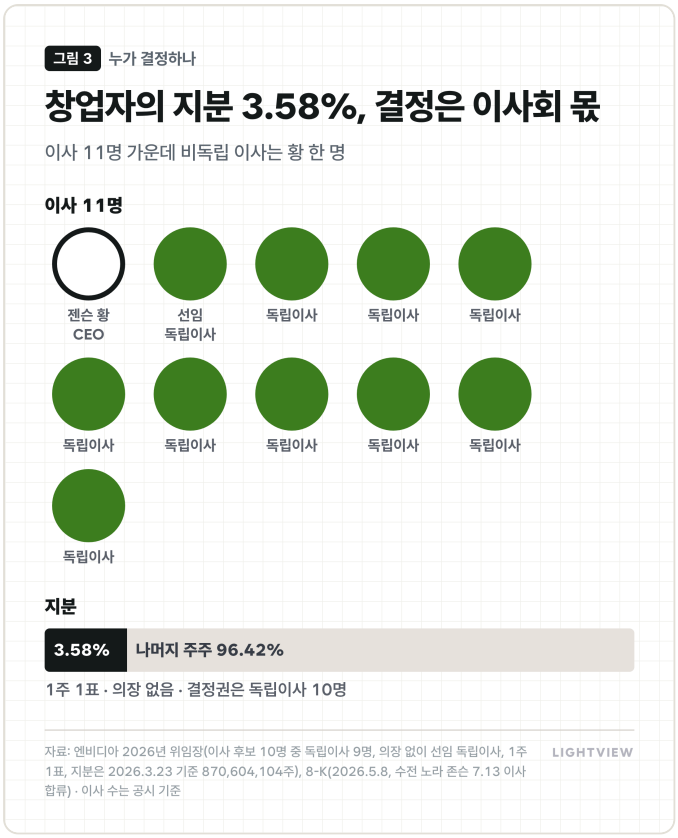
한국 시간 12일 오전까지 이사회의 결정 발표는 없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 목록에도 CEO 교체를 알리는 서류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로이터가 인용한 소식통은 후계 계획이 없어 당장 해임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임장에서 비어 있던 그 칸이 지금 이사회의 손을 묶고 있습니다.

2 열쇠를 쥔 이사 11명

창업자를 내보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엔비디아의 답은 간단합니다. 이사회가 마음먹으면 됩니다.

황의 지분은 3월 23일 기준 8억 7,060만 주, 3.58%입니다. 엔비디아는 1주 1표 구조라 창업자에게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주식이 없습니다. 창업자가 차등의결권으로 경영권을 지키는 메타·알파벳과 다른 점입니다.

이사는 11명입니다. 위임장의 이사 후보 10명 가운데 9명이 독립이사였고, 7월에 수전 노라 존슨이 이사회에 합류했습니다. 회사 사람은 황 한 명뿐입니다. 의장 자리는 없고 스티븐 닐 선임 독립이사가 이사회를 이끕니다. 황의 거취는 결국 독립이사 10명의 손에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가족 이야기도 있습니다. 황의 딸과 아들이 엔비디아에서 일하며 지난 회계연도에 각각 약 123만 달러와 132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둘 다 임원이 아니고 황에게 직접 보고하지도 않는다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포천은 두 사람과 사위를 후계 이야기에 거론되는 가족으로 꼽았지만, 독립이사가 다수인 이사회에서 그 길은 좁습니다.

3 황이 혼자 하던 다섯 가지 일

엔비디아에는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없습니다. 황에게 직접 보고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말로 약 60명입니다.

라이트뷰는 이 구조에서 황이 맡아 온 일을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제품 방향과 기술 판단의 마지막 결정을 내렸고, 마이크로소프트·구글·아마존·메타·오픈AI 같은 고객의 최고경영자를 직접 상대했습니다. 분기마다 투자자를 설득했고, 수출통제를 둘러싸고 회사를 대표해 워싱턴을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맡을 사람이 그 자리에 늘 있었습니다.

그림 4 비게 되는 자리

황이 혼자 맡아 온 다섯 가지 일

후임을 따지는 다섯 가지 잣대

1. **기술 신뢰** — 제품 방향과 기술 판단의 최종 결정
2. **고객 관계** — 빅테크·AI 기업 최고경영자와의 직접 거래
3. **재무·시장** — 실적 발표와 투자자 설득
4. **대외 신뢰** — 미국 정부·의회·수출통제 협상
5. **실행 가능성** — 후임이 바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지

자료: 포천(2026.11.9, COO 없음·직속 보고 약 60명), 엔비디아 IR(실적 발표), 엔비디아 위임장 · 다섯 가지 구분은 라이트뷰 판단 LIGHTVIEW

그래서 후계를 따지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누가 황을 대신하느냐보다, 이 다섯 가지를 누가 나눠 맡느냐입니다. 라이트뷰는 이 다섯 가지를 그대로 잣대로 삼았습니다. 기술 신뢰, 고객 관계, 재무·시장, 대외 신뢰, 그리고 당장 그 자리에 설 수 있는지를 보는 실행 가능성입니다.

4 내부의 두 사람

여섯 명을 다섯 잣대에 올려 보면, 다섯 칸을 다 채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림 5 후보 여섯 명

다섯 칸을 다 채우는 후보 없음

후보 여섯 명 × 잣대 다섯 개

	기술	고객	재무 시장	대외 신뢰	실행 가능
내부					
이안 벅 하이퍼스케일·HPC 부사장	●	●	◐	○	●
콜레트 크레스 최고재무책임자	○	◐	●	◐	●
외부					
르네 하스 Arm CEO	●	●	●	◐	◐
팻 겔싱어 전 인텔 CEO	●	◐	○	◐	●
시장의 꿈					
리사 수 AMD CEO	●	●	●	◐	○
팀 쿡 애플 이사회 의장	○	◐	●	◐	○

● 강함 ◐ 보통 ○ 약함 · 라이트뷰 판단, 확률 아님

자료: 포천·뉴스위크·타임(2026.11.9~11, 전문가 거론 후보), 엔비디아 블로그(이안 벅 직함), 소프트뱅크그룹 임원 약력(르네 하스), 글루 보도자료(팻 겔싱어), AMD 8-K(2014.10.8), 애플 보도자료(2026.4.20) · 평가는 라이트뷰 판단이며 확률이나 예측이 아님 LIGHTVIEW

내부에서 장기 답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이안 벅입니다. 2004년 입사해 엔비디아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뿌리인 CUDA를 만들었고, 지금은 하이퍼스케일·고성능컴퓨팅 부문 부사장으로 빅테크와 AI 기업에 들어가는 AI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사업을 이끕니다. 기술과 고객 칸은 꽉 찹니다. 빈칸은 바깥에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공개한 임원 명단에 그의 이름은 없고, 투자자 앞이나 워싱턴에서 회사를 대표해 본 기록도 찾지 못했습니다.

콜레트 크레스는 정반대입니다. 2013년 9월부터 최고재무책임자로 일하며 투자자에게 가장 익숙한 얼굴이 됐습니다. 11월 17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회사가 이름을 밝힌 사람도 콜 전에 서면 해설을 내는 크레스 한 명입니다. 헤드헌팅사 코언 파트너스의 숀 콜과 조지타운대 제이슨 슐로처 교수가 임시 CEO 후보로 그를 꼽는 이유입니다. 다만 기술 배경이 없어, 라이트뷰는 그를 오래 갈 답보다는 다리로 봅니다.

5 외부의 두 사람

바깥에서 가장 자주 거론되는 이름은 르네 하스입니다.

하스는 2006년 엔비디아에 들어와 컴퓨팅 제품 사업부를 맡았고, 2013년 Arm으로 옮겨 2022년 CEO가 됐습니다. 엔비디아를 안에서 겪었고 상장 칩 회사를 CEO로 이끌어 봤다는 점에서 다섯 칸이 고르게 찹니다. 걸리는 것은 겸직입니다. 그는 Arm 홀딩스 CEO이면서 소프트뱅크그룹 이사이고, 4월부터는 소프트뱅크그룹 인터내셔널 CEO도 맡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로 오려면 이 자리들과 얽힌 이해관계부터 풀어야 합니다.

팻 겔싱어는 당장 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텔 엔지니어 출신으로 2021년 2월 인텔 CEO로 돌아왔고, 지금은 신앙 기반 기술 기업 글루의 회장이라 몸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약점은 인텔에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는 2024년 12월 인텔을 떠났고, 라이트뷰는 그의 인텔 회생 작업이 성과를 내기 전에 끝났다고 봅니다.

6 시장이 꿈꾸는 두 사람

시장에서 꿈의 후보로 자주 거론되는 이름이 둘 있습니다. 둘 다 가장 멀리 있습니다.

리사 수는 2014년 10월 AMD CEO가 됐습니다. 그날 3.28달러였던 AMD 주가는 11일 552.90달러로, 약 168배가 됐습니다. 기술·고객·재무 칸은 누구보다 단단합니다. 하지만 그는 엔비디아의 가장 큰 경쟁사를 이끄는 현직 CEO이고, 공개된 가계도로는 황과 먼 친척 사이이기도 합니다. 11월 6일 종가부터 11일까지 AMD 주가는 23% 올랐습니다.

라이트뷰가 보기에 팀 쿡은 창업자 이후 승계의 모범 사례입니다. 그러나 그는 9월 1일 애플 CEO 자리를 존 터너스에게 넘기고 이사회 의장(Executive Chairman)이 됐습니다. 칩 엔지니어가 아니고, 라이트뷰는 애플의 중국 의존도가 대외 신뢰 칸에서 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그의 이름이 거론되는 이유는 2011년의 애플에 있습니다.

7 인텔과 애플이 남긴 교훈

엔비디아가 갈 수 있는 두 길을 다른 회사들이 이미 걸었습니다.

2018년 6월 20일 인텔 CEO 브라이언 크르자니크가 물러났습니다. 직원과의 과거 관계가 관리자에게 적용되는 사내 관계 금지 정책을 어겼다는 조사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이사회는 같은 날 최고재무책임자 밥 스완을 임시 CEO로 세웠고, 7개월 뒤 정식 CEO로 올렸습니다. 2021년 2월 인텔은 엔지니어 출신 겔싱어로 다시 CEO를 바꿨습니다. 재무 출신 다리를 놓은 뒤 엔지니어가 돌아오기까지 2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애플은 반대였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자리를 비운 세 차례(2004·2009·2011년) 동안 팀 쿡이 회사를 맡았고(2005년부터 COO), 2011년 8월 24일 잡스가 물러나자 쿡이 곧바로 CEO가 됐습니다. 후임이 이미 회사를 굴려 본 승계였습니다. 엔비디아에는 그 COO 자리가 없습니다.

재무 출신 임시 CEO는 시장을 진정시키는 데는 쓸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회사가 그 다리 위에 오래 머물면 기술 판단의 빈자리를 길게 견뎌야 합니다. 라이트뷰는 인텔의 2년 8개월을 엔비디아가 가장 피해야 할 경로로 봅니다.

8 한 사람이냐, 구조냐

라이트뷰가 보는 답은 조합입니다.

단기에는 크레스가 다리를 놓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투자자가 알고, 오늘 당장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장기 엔진은 벅이나 하스입니다. 벅은 엔비디아의 기술과 고객을 가장 잘 알고, 하스는 상장 칩 회사를 이끈 경험과 엔비디아를 안에서 본 경험을 함께 갖췄습니다.

사람만큼 중요한 것은 구조입니다. 60명이 한 사람에게 보고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면, 누가 와도 엔비디아는 또 한 사람에게 기대는 회사가 됩니다. COO를 두는지, 데이터센터·게이밍·자동차 같은 사업부에 책임 있는 수장을 세우는지, 승계 계획을 이사회가 직접 챙기도록 이사회 운영을 바꾸는지가 이번 결정의 크기를 정합니다.

9 11월 17일

엔비디아는 11월 17일 오후 2시(태평양 시간), 한국 시간 18일 오전 7시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날은 숫자만큼 사람을 봐야 합니다. 누가 마이크를 잡는지가 이사회의 답을 먼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황이 나오는지, 크레스가 혼자 나오는지, 처음 보는 얼굴이 나오는지입니다. 대형 고객이 주문과 출하를 어떤 온도로 말하는지, COO 신설이나 사업부 수장 같은 구조 변화를 함께 내놓는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독자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엔비디아 이사회라면 창업자의 빈자리를 한 사람으로 채우겠습니까, 구조로 채우겠습니까.

+ 용어와 출처

용어

위임장(DEF 14A) — 주주총회 전에 미국 상장사가 증권거래위원회에 내는 문서. 이사 후보, 임원 보수, 지배구조를 담는다.

선임 독립이사 — 이사회 의장이 없거나 CEO가 의장일 때 독립이사들을 대표해 이사회를 이끄는 이사.

CUDA — 엔비디아 GPU로 계산을 돌리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자들이 엔비디아를 떠나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8-K — 미국 상장사가 CEO 교체 같은 중요한 일이 생기면 며칠 안에 내는 수시 공시.

차등의결권 — 창업자 등이 가진 주식에 1주당 여러 표를 주는 제도. 엔비디아에는 없다.

하이퍼스케일러 — 거대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마이크로소프트·구글·아마존·메타 같은 클라우드 기업.

공식 문서

엔비디아 2026년 위임장(DEF 14A, 2026.5.12 제출) · 엔비디아 연차보고서(10-K, 2026.2.25 제출) · 엔비디아 8-K(2026.5.8) · 엔비디아 이사회 성명과 젠슨 황 직원 서한(2026.11.8) · 엔비디아 IR 3분기 실적 일정(2026.10.28) · 미 증권거래위원회 엔비디아 공시 목록(2026.11.12 오전 10시 47분 조회) · 인텔 8-K(2018.6.21, 2019.1.31, 2021.1.14) · AMD 8-K(2014.10.8) · 애플 보도자료(2011.8.24, 2026.4.20) · 소프트뱅크그룹 임원 약력(르네 하스) · 글루 보도자료(2025.3.24, 팻 겔싱어) · 엔비디아 블로그 저자 소개(이안 벅) · 야후 파이낸스 종가

보도·분석

뉴욕타임스(2026년 10월 말, 11.10~11 보도, CNBC·테크크런치 인용) · 월스트리트저널(11.11, CNBC 인용) · 로이터(11.11, BNN 블룸버그 재게시) · CNBC(11.8, 11.11) · CNN(11.11) · 블룸버그(11.11, 야후 파이낸스 인용) · 야후 파이낸스 실시간 보도(11.11, 하원 청문회 요구·베어드 의견 하향) · 포천(2024.11.12 직속 보고 60명, 2026.11.9, 2025 떠오르는 경영인 이안 벅) · 타임(11.11, 소넌펠드 외) · 뉴스위크(11.10) · CFO 다이브(11.10) · 톰스하드웨어(2023.7.1 가계도) · 당시 인텔 사임 보도(2018.6.21)

뉴욕타임스의 두 번째 보도와 월스트리트저널·로이터의 이사회 관련 보도는 엔비디아가 확인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인용한 보도는 원문 대신 다른 매체의 인용을 거친 것이 있습니다. 직속 보고 인원은 젠슨 황 본인의 공개 발언을 바탕으로 한 어림값입니다. 후보 평가와 결론은 라이트뷰 판단이며 확률이나 예측이 아니고, 투자 권유도 아닙니다. 내용은 2026년 11월 12일 오전(한국 시간)까지 공개된 정보를 기준으로 하며, 이사회 결정이 나오면 고쳐 씁니다.

AI 활용 안내 · 이 칼럼은 운영자가 주제와 분석 방향을 정하고 최종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자료 조사, 초안 작성, 인포그래픽 제작에는 AI 도구를 활용했습니다.